

매일 아침 생일 맞은 희생자에게 꽃 헌정... 미국은 영원히 널 기억할거야



송동훈의 세계 문명 기행

[뉴욕, 9·11 메모리얼 뮤지엄]

- 누구도 잊히지 않는다
2001년 9월11일 월드트레이드센터서 숨진 2977명과 1993년 테러 희생된 6명, 검은 청동 패널에 음각으로 이름 새겨

- 생일엔 반드시 꽃 한 송이
가족 대신해 국가 이름으로... 추모관 입구엔 로마 시인 버질의 시 '시간의 기억 속에 단 하루도 못잊어'

- 국가의 자격을 묻는다
500명 넘는 삼풍백화점 희생자는 번두리 밀려나고 그 자리엔 추상복합이 우뚝

'무엇이 강대국을 만드나' 다시 생각한다

9·11 테러 현장을 찾은 건 3월 중순이었다. 그날 아침은 추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서웠다. 아직 녹지 않은 눈을 밟으며 찾아간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세계화를 상징하던, 미국의

힘을 자랑하던 거대한 쌍둥이 빌딩은 사라지고 없었다. 20세기의 바벨탑이 서 있던 자리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쌍둥이 '풀(Pool)'로 변해 있었다. 풀 안쪽은 더 깊은 사각형의 무저갱이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안으로 폭포가 쏟아져 내렸다.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하는 눈물 같아 가슴이 딱딱했다. 그 끝엔 무엇이 있을까? 슬픔? 분노? 아니면 망각일까? 상념에 잠겨 다가가면 사각 풀은 검은 청동 패널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위로는 촘촘하게 사람들 이름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총 2983명. 9·11 테러로 희생된 2977명에, 1993년 2월 26일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희생자 6명을 더한 수이다. 숙연해졌다. 희생자가 너무 많은 탓이다. 이름을 읽으며 건다 흰 장미 한 송이를 보았다. 검은 청동 패널과 대비가 강렬했다. 가까이 가보니 'Melanie Lou-

ise de Vere'란 여성의 음각된 이름에 꽃혀 있었다. 딱 한 송이뿐이었다.

장미 한 송이의 가치

누가, 왜 꽃았을까? 9·11 메모리얼이 오픈하기 전 이른 아침이었으니 방문객은 아니었다. 추운 날씨에도 장미가 탐스럽고 싱싱한 걸로 보아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날 아침에 꽃은 것이었다. 느낌이 왔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물었다. "저희 직원들이 아침마다 그날 생일을 맞은 희생자들 이름 위에 장미 한 송이를 꽂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했다. 여기 이름을 남긴 3000명 가까운 희생자는 모두 같은 날 사망했다. 그날은 많은 미국인이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다.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희생된 날에 그들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테러에 희생되지 않았다면 여태껏 살아 맞이했을 생일조차 가족과 친구를

대신해 챙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9·11 테러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1957~2011)이 이끄는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자행했다. 그날 아침 테러리스트 19명은 비행기 4대를 공중 납치한 후 세계화의 상징인 뉴욕 맨해튼의 월드트레이드센터, 미국 힘의 상징인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건물을 향했다. 그들은 쌍둥이 빌딩인 월드트레이드센터를 완전히 파괴했다. 펜타곤 일부를 부수는 데도 성공했다. 그 과정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냉전(冷戰)이 종식되고,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해체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게 됐다. 미국은 테러 배후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상대로 긴 전쟁을 시작했다.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를 섬멸하기 위한 비밀 작전도 진행됐다. 오사마 빈라덴은 2011년 5월 파키스탄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살해됐다. 테러를 자행한 지 10년 만이었다. 테러범을 추적해 응징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 정부는 '9·11'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작업도 시작했다. 그 결과가 월드트레이드센터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야외 추모 공간과 9·11 메모리얼 뮤지엄이다(2014년 5월 개관).

누구도 잊히지 않는다

추모 박물관은 거대한 지하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 내려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메모리얼 홀'이다. 홀 입구에는 이곳의 존재 이유



와 정신을 상징하는 한 문장이 콘크리트 벽면에 크게 새겨져 있었다.

'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 Virgil'

심장이 멎는 느낌이였다. '시간의 기억 속에서 단 하루도 당신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언제나 조국은 당신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며 다짐이었다. 이 문장의 필자가 '버질(Virgil)'이란 사실도 놀라웠다. 우리에게 '베르길리우스(Vergilius BC70~BC19)'로 잘 알려진 버질은 아우구스투스 시절 로마제국의 대시인이었다. 대표작 '아이네이스(The Aeneid)'는 로마제국의 탄생을 그린 대서사시다. 미국은 무려 2000년 전 서사시의 한 문장을 따 9·11 추모 박물관의 입구를 장식한 것이다. 인간은, 국가는, 문명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한다. 비켜 갈 수 없는 운명의 굴레다. 그러나 그 필멸의 운

▲ 9·11 테러 희생자 추모 기념 공원에는 희생자 이름이 빼곡하게 음각된 검은 청동 패널이 있다. 아침마다 생일을 맞은 희생자 이름에는 장미 한 송이가 꽃힌다.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인 동시에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를 상징한다.

명 속에서도 누군가는, 혹은 어떤 사건은 절대로 잊히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버질이 살던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있다. 미국에 9·11 테러 희생자들은 나라가 존속되는 한,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메모리얼 홀 중앙에 위치한 'IN MEMORIAM'이란 실내 추모 공간의 벽면은 2983명의 사진으로 장식돼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희생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설명이, 그를 기억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벽면에는 프로젝트 빔이 생전(..11페이지에 계속)



▲ 9·11 추모 기념 공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청동 패널에 적힌 희생자들 이름을 읽고 있다. 외롭게 꽃힌 성조기가 이채롭다.



▲ 2017년 9월 11일 자유의 여신상과 뉴욕 마천루를 배경으로 두 빛줄기가 밤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는 매년 9·11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의 하나인데, 빛줄기가 보이는 곳이 원래 쌍둥이 빌딩인 월드트레이드센터가 있던 자리다.